



201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최 원 선임연구원

■ 201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0년 말 대비 0.54%p 하락한 1.36%로 나타났으며, 부실채권 규모는 2010년 말 대비 6조 원 감소한 18조 8,000억 원을 기록함.

- 2011년 1~4월 일부 대형 건설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은행들의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 신규부실 발생 감소 등에 힘입어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됨.
 - 특히, 은행들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에 힘입어 2011년 4/4분기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전분기 대비 0.3%p 하락함.
- 부문별로는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2010년 말 대비 0.87%p 하락한 1.73%를 기록한 데 반해, 가계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010년 말 대비 0.04%p 상승한 0.6%를 나타냄.
 -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0년 말 대비 0.39%p 상승한 1.36%를 기록함.

〈표 1〉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12월	6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p
부실채권 잔액	14.7	19.6	16.0	25.6	24.8	26.2	23.0	22.9	18.8
(부동산 PF)	(1.4)	(2.2)	(1.2)	(4.3)	(6.4)	(6.6)	(4.2)	(4.0)	(2.4)
부실채권 비율	1.14	1.51	1.24	1.94	1.90	2.00	1.73	1.66	1.36

자료: 금감원.

■ 2011년 국내은행의 신규부실 발생액은 2010년 대비 11조 5,000억 원 감소한 23조 9,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2010년 대비 2조 8,000억 원 증가한 29조 8,000억 원을 기록함.

- 기업여신 신규부실 발생액이 19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였으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 신규부실 발생액이 각각 4조 1,000억 원, 6,000억 원을 기록함.
 - 부실채권 정리실적은 대손상각(9조 2,000억 원), 매각(7조 4,000억 원), 담보처분 등을 통한 여신 회수(7조 1,000억 원), 여신정상화(5조 5,000억 원), 기타(6,000억 원) 순으로 조사됨.
- 금감원은 2011년 국내은행의 신규부실 발생액 감소와 더불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위기대응과 손실흡수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힘.
- 금감원은 2012년에도 엄정한 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과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충당금 적립을 지도하는 한편,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부실채권 목표비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11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금감원, 2/10)